

코리언 좌완의 위력... 류현진·김광현 나란히 선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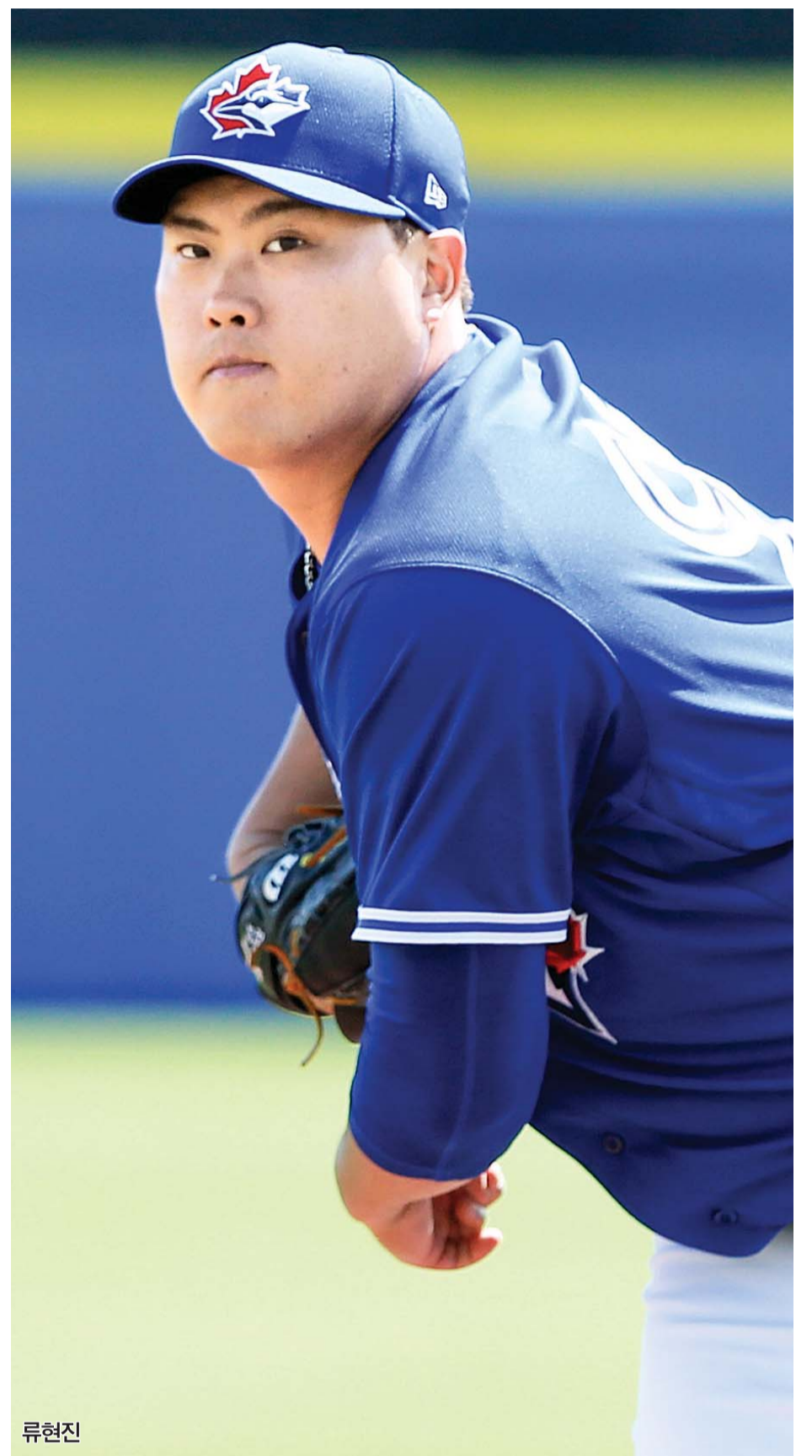


김광현

류, 4.1이닝 3피안타...완급 조절·변화구 완벽
김, 3이닝 2피안타...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삼진쇼
KBO서 라이벌 구도 재현...시즌 중 맞대결 '관심'

KBO리그를 대표했던 라이벌,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처음으로 같은 날 선발 등판해 나란히 호투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10일 오전 2시 7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볼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범경기에서 선발 출격해 4.1이닝을 3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김광현은 류현진보다 2분 이른 2시 5분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해먼드 스타디움에서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3이닝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두 선수는 KBO리그 시절 보여준 완벽한 모습을 미국에서 재연했다. 류현진은 뛰어난 완급 조절과 위기관리 능력, 다양한 변화구로 탬파베이 타선을 무력화시켰고, 김광현은 특유의 빠른 템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삼진 쇼를 펼쳤다. 두 선수는 이날 나란히 승리투수 훈장을 달았다. 토론토는 8-3, 세인트루이스는 3-0으로 승리했다. 한국 출신 두 좌완 선발 투수의 호투에 두 소속 팀도 환호했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교체되자마자 그가 체인지업을 활용해 삼진 잡는 짧은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개하며 호투 소식을 알렸다. 세인트루이스 역시 SNS에 '김광현이 이번 스프링캠프 때 펼친 기록을 살펴보자'라며 그의 성적을 소개했다. 김광현은 올해 4차례 시범경기에서 8이닝 동안 11탈삼진을 잡아내며 무실점을 기록했다. 비록 시범경기지만, 두 선수의 호투 행진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KBO리그에서 보여줬던 라이벌 구도를 떠올리게 한다. 류현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화이글스에서 기록 없는 투구를 선사하며 리그 대표 에이스로 활약했다. 김광현도 2007년부터 SK 와이번스에서 류현진 못지않은 성적을 냈다. 두 선수는 선동열-故 최동원 못지않은 라이벌로 관심을 끌며 리그 흥행을 주도했다. 다만 선발로 맞대결을 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국서 펼치지 못한 두 투수의 대결은 미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팀은 6월 2~3일과 8월 19~20일, 두 차례 2연전을 펼친다. 류현진은 토론토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부상 등 이변이 없는 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간다. 김광현은 시범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팀 내 선발 진입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류현진

KIA 마운드 "시즌 준비 끝"



독립리그 연합팀과 연습경기
양현종 48개 투구...구속 149km 기록
고영창·박준표·문경찬 무실점투
패조의 컨디션 보이며 시즌 전망 밝혀

최형우·김선빈·박찬호·최원준 멀티히트
타선 15안타 12득점...타격감 과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좌완 트리오'가 동시에 플로리다 마운드에 출격했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나란히 선발 등판한 10일, KBO리그의 자존심이자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도 캠프 두 번째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양현종은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의 테리스 포츠파크에서 열린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다. 지난 4일 이번 스프링캠프 첫 등판에 나서 2이닝 동안 22개의 공을 던졌던 양현종은 6일 만의 등판에서는 48개의 투구수를 기록했다. 이날도 2이닝에서 3이닝으로 늘었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양현종은 1루수 땅볼로 투 아웃을 채웠다. 이어 투수 앞 안타를 허용했지만 좌익수 플라이로 1회를 정리했다. 2회에는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내줬지만 좌익수 플라이와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양현종은 3회 시작과 함께 선두타자 홈런을 맞은 뒤 1루수 실책, 우전 안타 등으로 투구수가 증가하면서 48구에서 등판을 끝냈다. 실점은 기록했지만 최고 구속을 149km까지 끌어올리고, 탈삼진 3개를 기록하는 등 양현종은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순조롭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양현종은 이날 등판을 끝으로 스프링캠프에서는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르지 않는다. 양현종에 이어 KIA의 필조조도 나란히 출격해 컨디션 점검을 했다. 고영창이 먼저 마운드에 올라 5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박준표는 13개의 공으로 5개의 아웃카운트를 처리하면서 패조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박준표는 탈삼진 두 개도 뽑아내며 빠르게 아웃카운트를 더했다. 마무리 문경찬은 7회 출격해 안타 하나를 내줬지만 삼진으로 7이닝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책임졌다. 하준영이 팔꿈치 통증으로 아직 실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박준표와 문경찬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KIA 불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운드 점검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날, KIA 타선도 장단 15안타로 12점을 만드는 등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톱타자로 나서고 있는 박찬호가 2루타 포함 2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김선빈과 최형우, 그리고 최원준도 멀티히트를 장식했다. 특히 최원준은 3회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2사 1·2루에서 맞은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2타점 2루타를 날렸고, 5회에도 적시타를 기록하는 등 3타점 활약을 펼쳤다. /wool@kwangju.co.kr



양현종

프로야구 개막 다음달로 연기

144경기 원칙...무관중 경기·더블헤더 가능성

시범경기 취소에 이어 KBO 정규시즌도 연기됐다. KBO가 10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사장이 참여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2020 정규시즌은 오는 3월 28일 개막을 앞두고 있었다. 이사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을 차의과대학의 학원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팬들과 선수단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해 개막 연기를 결정했다. KBO는 앞서 14일부터 예정됐던 시범경기 일정도 전면 취소하며 코로나19 추이를 주시했다. 개막은 연기됐지만 KBO는 정상적인 리그 운영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KBO는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개막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개막일을 선수단 운영과 예매 등 경기 운영 준비 기간을 고려해 2주 전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구단당 144경기를 원칙으로 상황에 따라 무관중 경기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규리그 개막은 발표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래 예정됐던 개막일인 3월 28일부터 새로 정해지는 개막일 전까지 못 치른 경기는 추후 재편성해서 치를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도 편성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5세 이집트 축구선수 프로 데뷔전서 PK 득점

3부리그 풀타임...최고령 프로 선수로 기네스북 등재 눈 앞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이집트 출신의 '75세 할아버지' 예즈 엘 딘 바하더(식스 오브 옥토버)가 이집트 프로 축구 3부리그 데뷔전에서 풀타임을 뛰는 동안 페널티킥으로 득점까지 성공하며 '역대 최고령 프로축구 선수' 기네스북 등재를 눈 앞에 뒀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0일 "바하더가 지난 7일 치러진 지니에스와의 이집트 프로축구 3부리그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다"며 "바하더는 페널티킥으로 득점까지 하면서 팀의 1-1 무승부를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바하더는 오는 21일 예정된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면 '최고령 프로축구 선수'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기존 최고령 프로축구 선수는 지난해 4월 73세 95일의 나이로 이스라엘 헤위리그에서 '두 경기 풀타임 출전' 규정을 맞춘 이스라엘 출신의 이삭 하이크다. 6살 때 카이로 거리에서 불을 처음 쐈던 바하더는 토크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와 토지 경작 전문가로 종사하면서도 아마추어 팀에서 뛰며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다. 그는 결국 처음 축구를 접한 지 70년이 흐른 올해 1월 카이로 연고의 '식스 오브 옥토버' 클럽에 입단하면서 생애 처음 이집트 축구협회에 정식 선수로 등록했다. /연합뉴스